

김태완 CIVVIS

CIVVIS(시비즈)를 이끄는 디자이너 김태완입니다.

하나의 옷 뒤에 쌓인 사유의 과정에 진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계 각지의 빈티지 샵과 플리마켓, 컬렉터의 아카이브를 직접 발로 뛰며 모으고 느끼는 것에서 모든 작업이 시작됩니다. 밀리터리와 아메리칸 캐주얼, 유러피안 헤리티지의 견고한 뼈대를 오래 들여다본 끝에, 낯선 텍스처와 유쾌한 위트를 충돌시켜 익숙하지만 본 적 없는 옷을 만듭니다. 옷에도 삶의 냄새가 배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려받은 사람



이 작업에서 나는 업사이클링을 '무언가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 안에서 완결시키는 일'로 보았다. 화학적 처리를 하거나 이 작업을 위해 새 원단을 추가로 소비하는 방식은 순환이라는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빈폴에서 받은 데드스톡을 버리는 조각 없이 그대로 사용했고, 함께 쓴 원단과 실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누군가에게 나눔받은 것, 그리고 졸업하며 남기고 간 것들이다. 서로 다른 색으로 드러나는 실들은 이 옷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왔다는 흔적이다.

봄버 재킷은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페르소나에서 출발한다. 누군가에게 이 옷을 물려받은 사람은,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이 이 옷을, 혹은 이 옷을 이루는 재료들을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퍼를 비롯한 부속들은 쉽게 뜯어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손바느질로 마감했다. 몇몇의 부속은 이미 헤진 상태,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넘어갈 여지를 남긴 상태로 물려받았고, 또 물려줄 수 있는 옷이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담고자 했다.